



SK에너지, 업계 최초 수출 200억 달러 돌파

SK에너지가 지난해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힘입어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수출기업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기업 중에 연간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SK에너지는 지난 1월22일 오후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2008년 실적설명회를 통해 신규고도화 설비 가동과 수출지역 다변화의 가시적 성과 등으로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 힘입어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5조 7,459억원과 1조 9,334억원으로 전년대비 65%,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조원대의 환차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9% 및 26% 감소한 9,920억원과 9,070억원을 나타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넘지 못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영업·경상·순이익률이 예년보다 감소한 4.2%, 2.2%, 2%를 기록했다.

SK에너지는 작년 한 해 동안 2007년 보다 87% 늘어난 26조 6천억원을 기록, 달러 기준으로는 2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올렸다. 이에 대해 SK에너지는 "지난 6월 가동을 시작한 고도화설비 생산효과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SK에너지, 미래성장 동력 강화 임원인사 단행



SK에너지가 지난 12월19일 「글로벌사업 가속화와 미래성장 동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 12월 19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총괄사장 1명, 사장 1명, 부문장 1명, 선임임원 9명 등 총 12명에

대한 임원 승진인사를 확정지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는 Globalization 가속화, 성장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내실경영 강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우수임원 선발·배치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 구자영 신임 총괄 사장은 뉴저지 주립대 교수, 엑손모빌 선임연구원 및 포스코 상무를 거쳐 1993년 엑손모빌에 재입사해 엑손연구소 기술혁신 및 R&D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했으며 SK에너지는 2008년 1월에 입사해 연구개발 및 전략을 담당하는 P&T 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구자영 사장 약력] ▲1948년생 ▲부산고, 서울대 금속공학 졸업

▲UC버클리 재료공학(석/박사) ▲미국 뉴저지 주립대 공대 교수
▲포스코 상무(경영정책, 신사업 본부장) ▲미국 엑손모빌 기술 경영위원회 위원 및 기술혁신 매니저 ▲SK에너지 P&T 사장

SK에너지, '150억 달러 수출탑'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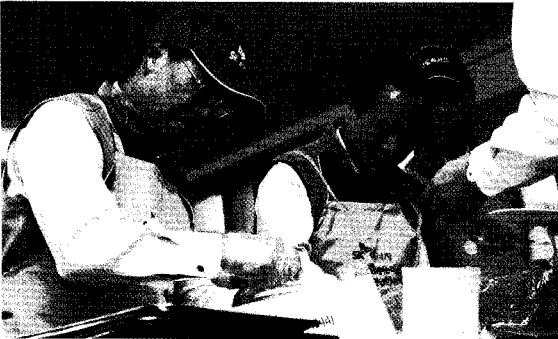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지난 12월2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주최,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5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수출액이 150억 달러를 넘어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출액 500억 달러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기업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SK에너지는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이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수출을 기록한 Global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올해 7월 신규 고도화설비가 상업가동하면서 수출액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아시아 시장 침체에 대비해 유럽 등지로 수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판매처를 지난해부터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 배식 봉사활동 펼쳐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이 지난 1월 16일 부산 기장군 월내리 월내중교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SK에너지는 부산 해운대의 무료급식소 3개소, 기장군의 무료급식소 2개소를 비롯해 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쌀 295포대를 지원했다.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은, “어느 해 겨울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실 소외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며, “SK에너지는 앞으로도 이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SK에너지, '행복 나누미' 행사 개최



SK에너지는 지난 12월4일, 5일 양일간 전국의 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노인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가족들과 시설 복지사 210명을 워커힌로 초청해 지난 1년간의 행복 나눔에 대한 성과를 격

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직접 겨울용품과 간식이 담긴 행복 전파 선물을 만들어 장애인 학교, 장애인 병원,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행복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 맞는 행사로 소외아동, 장애인, 노인 등 그동안 행복을 전달 받은 사람들이 직접 선물을 만들어 주위의 소외이웃에게 행복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였다”며 “올 겨울 더 많은 행복 나눔이 실천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 동남아 기후변화 대응 지원 나선다

SK에너지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한-개도국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남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월 1일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에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협상에 대비한 국제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사업이다.

SK에너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계명대학교, 산업기술대학교, KOTRA 등 5개 주관 기관과 함께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SK 사외이사들, 경기불황 탈출 앞장선다

글로벌 경기불황의 한파를 넘기 위한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사외이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SK주식회사와 SK에너지는 사외이사들이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고 지난 1월15일 밝혔다.

이번 연봉 반납은 작년말부터 사외이사들간에 자발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친 사외이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별집무실을 공동집무실로 변경키로 하는 한편,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봉의 10%를 추가로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SK 사외이사들은 국내의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술선수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GS칼텍스 시무식 개최



GS칼텍스가 지난 1월 2일 오전,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의 시무식 행사를 갖고 희망찬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 2005년부터 신입사원들의 퍼포먼스로 시무식을 장식해온 것과 같이, 이날도 2008년 신입사원 45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찬 주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뮤지컬로 구성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허동수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09년 회사의 경영목표를 'Cost 경쟁력 확보'로 설정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리

더'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동수 회장은 200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과 극대화,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비용의 획기적 절감 그리고 무재해 사업장 실현 등을 경영과제로 제시하며, 임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서 철저히 실행하여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50억불 수출의 탑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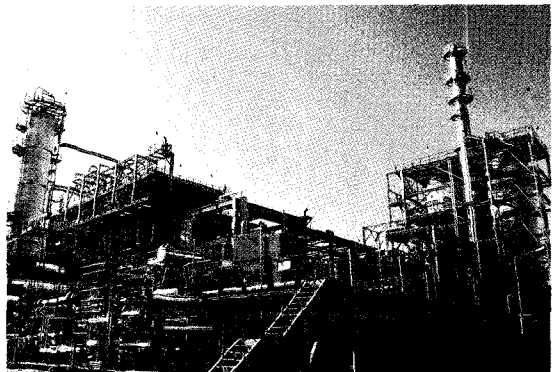
GS칼텍스는 지난 12월 2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45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GS칼텍스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 총 155억불의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GS칼텍스는 2차 오일쇼크 당시 원유 임가공 수출을 통해 지난 1983년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수출 2억불 탑을 수상한 이후, 업계 최초로 일본과 미국에 휘발유를 수출하는 등 품질과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

의 절반 이상을 수출한 데 이어, 2008년도 3사분기 누적 매출액의 57%를 수출을 통해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GS칼텍스, 제4경유 탈황시설 상업가동 시작



GS칼텍스는 지난 12월 6일, 3,350억 원을 투자한 제4경유 탈황시설(No.4 Diesel HDS Project)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제4경유 탈황시설은 지난 2007년 2월 상세설계를 시작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약 1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

쳐 지난 11월15일 기계적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시험운전 과정을 거쳐 12월 6일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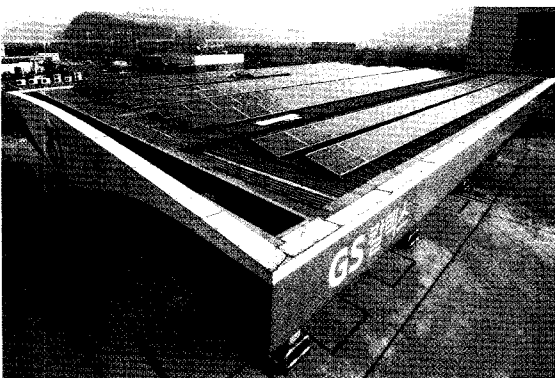
제4 경유 탈황시설은 1일 70,000배럴의 경유 탈황시설 및 1일 150톤의 황화수(SRU) 공정과 탱크, 유틸리티, 수소 공급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가동에 따라 GS칼텍스는 총 26만 배럴의 등경유 탈황시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말맞이 소원 성취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GS칼텍스가 2008년에도 소외된 이웃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연말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GS칼텍스는 지난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630여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서울, 여수 등 전국 7개 도시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소원을 이루어주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05년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라는 삶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시작된 회사의 연말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활동은, 기부 형식의 일반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달리 임직원들의 기부에 매칭그랜트한 기금을 더해 임직원과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경기도와 주유소 태양광 발전 MOU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시화C주유소에서 허동수 회장과 김문수 도지사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유소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서는 경기도 내 소재한 GS칼텍스 주유소의 태양광 발

전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주유소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S칼텍스는 현재 시화C주유소 등 8개 주유소에 연간 약 200MW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90ton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양미술거장展 고객 초대 이벤트

GS칼텍스는 2008년 11월20일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서양미술거장展 : 렘브란트를 만나다>에 고객 2만2천명을 초대하고,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전액 이웃사랑을 위해 기부한다.

GS칼텍스는 고객 초대 이벤트와 함께, 고객들이 전시회 관람과 함께 보너스(GS&POINT)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선착순으로 각각 1만 포인트와 1천 포인트를 기부하는 고객들에게 각각 무료초대권 및 전용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 아틀리에 패키지 당첨자에게도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기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행사 종료 후 고객 적립금 및 매칭 그랜트로 약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이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미술 교육 및 용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허동수 회장, VIP 고객 초청 신년행사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펼쳐진 VIP 고객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GS칼텍스 계열 대리점 및 주유소 파트너 등 협력업체 대표 60여명과 함께 <서양미술거장展>을 관람하는 이색 신년행사를 가진 허동수 회장은, "GS칼텍스의 소중한 상생 파트너인 협력업체들과 2009년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S-OIL 신년산행, “움츠리지 말고 뛰자”



S-OIL은 지난 1월 17일 청계산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Ahmed A. Subaey) CEO를 비롯한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과 신입사원 등 임직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등반 행사를 갖고 2009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결의했다.

수베이 CEO는 이 자리에서 “2009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S-OIL이 창사 이래 끊임 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 왔듯이 임직원

모두가 그간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다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베이 CEO는 “이를 위해 과거의 성과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임직원 모두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S-OIL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S-OIL, 불우이웃돕기 성금 10억원 기탁

S-OIL은 지난 12월 30일 추운 겨울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했다.

S-OIL은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캠페인’에 1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수베이 CEO는 “다양한 민간복지 사업을 통해 지원될 이 성금이 힘겹게 겨울을 나는 소외계층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S-OIL은 경제 난 속에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IL, ‘2008년 시민영웅 시상식’ 열어

S-OIL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시민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故 이국열 목사 등 시민영웅으로 선정된 11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의 추천을

거쳐 시민영웅에 선정된故 이국열 목사,故 유현상 의용소방대원,故 최한규씨의 유족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임영태 택시기사 등 시민영웅 부상자 4명, 김미연씨 등 시민영웅 활동자 4명에게 위로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S-OIL, 2008 영웅소방관 포상



S-OIL은 지난 12월 22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배몽기 소방교(부산

소방본부) 등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8명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소방방재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최고영웅소방관에 선정된 배몽기 소방교에게 2천만원, 정용섭 소방장(대구 수성소방서) 등 영웅소방관에 선정된 7명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을 포상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이날 최고영웅소방관의 칭호를 받은 배몽기 소방교는 그 동안 119 시민수상구조대에 근무하면서 180명의 익수자(물에 빠진 사람)를 구조하는 등 인명구조에 탁월함을 보여 타 소방대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S-OIL, '사랑의 떡국 나누기' 봉사활동



S-OIL은 설날을 맞아 지난 1월 22일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60여 명은 끼니를 거르는 노숙자 100여 명에게 떡국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영등포 일대 쪽방 약 500 세대를 찾아 떡국떡, 소고기, 과일,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다.

수베이 CEO는 "어려운 이웃들이 한국 전통명절인 설날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경제난 속에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OIL,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S-OIL은 추운 동절기를 맞아 지난 11월 28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S-OIL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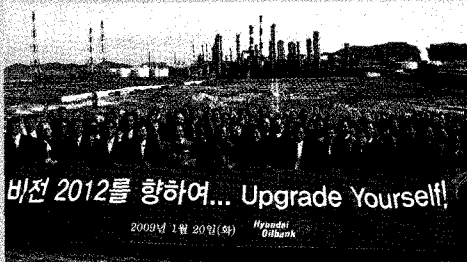
이날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과 지역사회 봉사자 60여명은 상도동 일대의 저소득층 50가구에 연탄 각 200장씩 총 10,000장(50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S-OIL은 관련단체인 푸르메 재단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약 50,000장(2,5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부했다. 수베이 CEO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에서 S-OIL 직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S-OIL, 해양경찰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란음악회' 열어

S-OIL은 지난 12월 23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경찰관들과 가족들을 위한 S-OIL의 "찾아가는 노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5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무대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과 지역 공연팀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 그룹 '원더풀'의 이름다운 하모니와 트롯 가수 '서주경'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해양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해양경찰관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는 꿈 속에서도 찾아라”



비전 2012를 향하여... Upgrade Yourself!

2009년 1월 20일(목)

Hyundai Oilbank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을 연결시켜 창조적 혁신으로 현 위기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꿈 속에서도 찾아 나서라”고 강조했다.

서 사장은 지난 1월20일 충남 서산 대산 공장에서 열린 '전사(全社)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발표대회'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고도화 사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황기의 과

감한 경영전략이 반드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경영혁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전사 액션러닝 발표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현대오일뱅크는 경영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지난 2003년부터 전사적으로 채택해 렛츠(Let's ; Learning by Executing Together for Solution)라는 고유의 액션러닝 프로젝트로 진화시켜 매년 초 전사 결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렛츠 활동으로 모두 178건의 액션러닝 과제를 등록해 문제 해결 찾기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등록 과제 해결을 통해 지난 한 해 600억 원의 정량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영진과 신입사원의 진솔한 대화

회사와 개인의 역량을 모두 발전시켜 나가는 인재가 되자.

현대오일뱅크 1년 차 신입사원들이 서영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회사와 개인의 역량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12월 15일과 22일 이틀간 현대오일뱅크 신입사원 38명은 경영진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1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바를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올해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신입사원들은 다소 걱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현대오일뱅크 신입사원 특유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대표이사는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서로 고통을 분담해서 이겨나간다면 우리회사의 숙원 사업인 증설 사업을 이루어 내고 위기 또한 훌륭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을 마치고 여신관리팀의 김성우 사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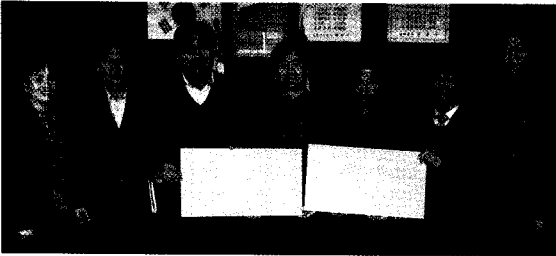
있다는 것은 회사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개인 역량도 계속 성장시켜야겠다”라며 다짐을 밝혔다.

제8대 노동조합위원장에 정제1팀 김태경 과장 당선

지난달 12월 20일에 실시한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 제8대 임원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611표 중 378표를 득표한 정제1팀 김태경 과장이 당선됐다.

김태경 과장은 1988년 입사한 이래 20년 동안 줄곧 현대오일뱅크에서 일해 왔다. 한편 수석 부위원장엔 조한보 환경안전팀 대리, 사무국장에는 전희도 정제1팀 주임이 각각 당선되었다. 제8대 노동 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김태경 과장은 “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도와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참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월급 모아 태안 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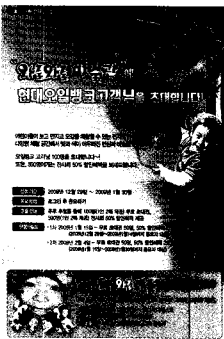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작년 유류 유출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태안 주민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청에서 “태안주민 돕기 임직원 급여 우수리 성금 및 지역 수매 쌀 기증식”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태구 태안군수와 박병구 생산지원부문장 등 태안군청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급여 우수리로 모금한 약 4천 만원과 시가 4억5천 만원 상당의 쌀 1만 가마(40kg)가 전달되었다. 이중 임직원들이 1년 동안 월급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급여 우수리 약 4천 만원은 태안지역 명지 초등학교와 대산 고등학교에 1천 만원, 태안지역 불우이웃에 약 3천 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 영화 체험전 ‘와글와글 미술관’ 고객 이벤트



현대오일뱅크가 연말 연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마케팅 행사로 고객 사로 잡기에 발 벗고 나섰다.

좋은 아바 캠페인 여덟 번째 행사로 진행되는 어린이 영화 체험전 ‘와글와글 미술관’은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 수도권 및 경기 북부지역 약 40개소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

행되었다. 1등 100명에게는 1인2매의 미술관 관람권이, 2등 500명에게는 50%할인 티켓이 제공되었다. 또한 고양 파주 김포 등지의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유소당 약 2,000매의 2,000원 할인권도

준비되어 있어 오일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너스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2008년 오일뱅크인상 연말포상 및 우수팀웍상, 모범상 시상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 총 22일간 실시한 임직원 윤리경영 설문조사 결과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윤리경영 인식과 의지가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직원 중 63.2%인 1,044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리경영인식 항목인 ‘우리회사의 윤리 의식 수준은 높다.’와 ‘협력회사로부터 선물 수수 안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이 ‘그렇다’라고 답변해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윤리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범무팀 민병준 부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경영 현장교육 및 직급별 교육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임직원 윤리경영 설문 조사 결과 발표

현대오일뱅크는 2008년 한 해를 빛낸 임직원 및 팀에게 오일뱅크인상 연말 포상, 우수팀웍상 및 모범상을 수여했다.

오일뱅크인상 연말 포상 대상에는 50여 억원(488만 달러)의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회사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표종명 차장 외 6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증설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정 등 법령 검토를 철저히 수행한 뒤 기술도입 신고 및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청을 실시, 조세감면 항목을 추가로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코손 증자 관련 업무로 높은 성과를 창출한 회계팀이, 우수상에는 수소공장 최적화 운전을 달성한 기술팀 이화형 부장 외 2인이 수상하였다.

또한 우수팀웍상에는 경영지원본부 IT팀, 영업본부 부산/경남직매본부, 전략개발팀, S&T본부 제품팀과 생산본부 동력팀, 증설사업본부의 설계부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팀웍상은 각 팀별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상금이 주어진다.